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18년 11월 12일 3시 45분

베로나 네그랄에서

아멜리아 안젤리카 스페짜니 수녀

89세 65년 수도생활을 일기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다.

교회가 “여기 세세 대대로 주님 당신의 얼굴을 찾나이다.”라고 시편저자를 따라 노래하는 중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관상했던 우리 자매 안젤리카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멜리아 수녀님은 1928년 12월 30일 모데나 포르미지네에서 아홉형제 사이에서 태어났고, 다음날 모데나의 마리아 마그레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0년 10월 16일 로마의 젠자노 수녀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아멜리아 수녀님은 1953년 10월 7일 페루지아 마싸 마르타나에서 영신수련을 한 후 빠스도렐레의 초창기 그룹과 함께 복자 알베리오네의 손에 공적으로 단순서원을 하였으나, 공식 첫서원 날짜는 1953년 6월 12일 로마의 루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아멜리아 수녀님은 서원을 한 후 마리아 안젤리카라는 서원명을 갖습니다.

안젤리카 수녀님은 신앙심 깊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단순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나 사람들 앞에서나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솔직하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머감각이 있고 기쁘게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수도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삶과 체험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영적 독서를 꾸준히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주위를 기울였습니다. 소외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목 직무에서 가정과 노인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안젤리카 수녀님은 서원 후 파도바의 코렛졸라로 유치원 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1965년까지 콘살돌로 (FE)의 첫 공동체의 분원장으로 그 다음은 룡가 (VI)에서 그리고 다시 콘살돌로에서 분원장을 지냈습니다. 1966년 모데나의 메돌라에 도착하여 다시 어린이들의 교육에 헌신하였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사회복지 학위를 위해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카리타스와 사회사목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특히 바리(1973-1977년)와 비첸자(1977-1994년)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995년 네그랄 공동체에서 1년간 안식년을 지낸 후에 토리노의 보르가렛또에서(1996-2013년) 사도직을 지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모잠비코의 세 명의 유기서원자들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베로나의 보르고 누오보로(2013-2016 년) 이동하여 양성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모잠비코의 한 유기서원 수녀님은 수녀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수녀님이 현존 그 자체로 우리의 양성 여정을 풍부하게 해 주셨는데, 그분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기도와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창립자와 수도회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무상으로 전해주는 능력이 있는 언니였습니다. 좋은 유머감이 있는 태도로써 성소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2017 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네그랄 공동체로 이동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의 관대하고 사랑 가득한 돌봄 속에 평온하게 매일의 삶을 봉헌하며, 사목적 직무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하여 사랑하고 섬겼던 선한 목자예수님께 신뢰하며 의탁하였습니다.

안젤리카 수녀님을 향하여 베풀어주신 사랑에 대하여 각 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수녀님을 맡겨드리며 수녀님의 삶과 성소의 선물에 대하여 찬미합니다. 또한 안젤리카 수녀님께 성령의 도움으로 공식 방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태리의 모든 빠스또렐라를 위하여 전구해 달라고 청합니다.

2018 년 11 월 12 일

성 요사팻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따 사르미엔또 푸엔떼스